

연구논문

농촌빈곤가계의 경제문제 II - 소비 문제를 중심으로 -

최은숙 · 노자경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

Economic Problems of Rural Poor Households in Korea II
- Focused on the Consumption -

Choi, Eun-Sook · Roh, Ja-Kyoung

Dept.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consumption problems of the rural poor households. This is a succeeding work to the previous report on economic resource problems. Data from 154 rural poor households and 290 rural non-poor households were analysed to comprehend their consumption practices,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consumer competence of homemakers, and market environments. The major findings and conclusions are as follows : 1. The rural poor households had deficit of 30,000 won per month. They perceived relative importance of the educational expenses and food expenses and heavier pressure of educational expenses and light and water expenses than other items. 2. The rural poor households evaluated their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average like non-poor households but their level of consumer competence was lower than other households. This means their consumer efficiency is relatively low. 3. The rural poor households had similar grade of market environments to non-poor households. This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urban households.

Key Words : Consumption practice,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consumer competence, market environment

I. 서론

1. 문제의 제기

가계는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여 소비지출 활동을 함으로써 가족원의 복지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 활동은 이용가능한 경제자원에 의해 제약을 받으므로, 경제자원이 부족한 가계는 가족의 복지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 활동은 가족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나 많은 수의 가계가 절대적·상대적인 경제자원의 부족을 경험하므로 다른

생활영역보다 경제생활영역에서의 만족도 혹은 복지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 최은숙(1991)의 연구에 의하면 농가의 경제생활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복지수준은 각각 100점 만점의 52점과 51점으로 8개의 생활영역 중에서 7위로 나타난 바 있다.

가족의 요구에 맞게 소비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빈곤가계는 경제자원의 수준과 그 구성이 열악하여 소비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제한된 경제자원하에서 경제적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선행연구결과들은 빈곤가계의 소비효율성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이 도시가계를 중

심으로 연구하여 왔으므로 그 결과를 농촌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 가계, 특히 농촌 빈곤가계의 복지수준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비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하므로, 소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실태, 가계관리능력, 소비자기능 및 시장환경의 평가를 통해 농촌 빈곤가계의 소비문제를 규명하고, 소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농촌 빈곤가계의 경제문제를 규명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선행연구¹⁾의 후속연구로, 경제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농촌 빈곤가계의 소비문제를 진단하고자 한다. 먼저 농촌 빈곤가계의 소비지출 수준과 구조 및 소비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그들의 소비실태를 살펴보고, 소비자 효율성과 관련된 요인인 가계관리능력과 소비자기능 및 시장환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농촌 빈곤가계의 소비지출 수준과 구조를 파악하고 비빈곤가계와 비교분석한다.
- 2) 농촌 빈곤가계의 소비생활상의 어려움을 농가주부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파악하고 비빈곤가계와 비교분석한다.
- 3) 농촌 빈곤가계의 소비자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계관리능력과 소비자기능을 평가하고 비빈곤가계와 비교분석한다.
- 4) 농촌 빈곤가계의 시장환경을 평가하고 비빈곤가계와 비교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가계의 경제적 복지는 경제적 자원과 소비자 효율성의 곱으로 산출되는데, 여기서 경제적 자원은 가계의 소득이나 자산을 통해 측정되며, 소비자

효율성은 그들의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정도이다(Mandell, 1981). 빈곤가계는 일반적으로 경제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계의 경제자원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효율성이 낮아 가계의 복지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본 연구목적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통하여 가계의 소비실태, 가계관리능력, 소비자기능 및 시장환경이 가계의 빈곤여부 또는 경제적 지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1. 소비실태

가계의 소비지출 수준은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최은숙(1992)의 연구에서도 생활비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객관적·주관적 생활의 질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고된 바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 수준은 주로 소득 및 자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러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빈곤가계는 소비지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필수적인 경제자원의 요구 즉, 생활필수품이나 자녀의 교육비²⁾ 등은 빈곤가계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비목이므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지더라도 소비지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큰 경제적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김영모(1990)는 1981년 빈곤가계조사에서 빈민의 60.4%가 적자생활을 하며, 농촌빈민의 경우가 도시빈민 보다 더 적자생활의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가계의 소비구조는 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및 가계비 비목의 구성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1993년도 농가의 가계비를 경지규모별로 살펴보면 0.5ha 미만의 영세농은 연 1,074만원(월 90만원)으로 2.0ha 이상 대농의 가계비(연 1,420만원)의 76% 수준이다.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는 0.5ha 미만의 영세농이 32%, 0.5ha에서 1.0ha 미만의 소농이 54%, 1.0ha에서 1.5ha 미만의 중농이 76%, 1.5ha에서 2.0ha 미만의 중농이 93%, 2.0ha 이상의 대농이 113%로 전국 농가 평균(69%)

1) 최은숙(1995), 농촌빈곤가계의 경제문제 I - 경제자원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제6권 1호.

과 비교해 볼 때 1.0ha 이상의 중농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가계비 충족도를 보였다.

가계비 항목별로 볼 때 대농으로 갈수록 모든 항목의 지출이 증가하나, 가장 필수적인 가계비 항목이며 가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물비의 경우 영세농일수록 음식물비 비율이 높다. 즉 영세농의 음식물비는 총가계비의 26% 수준인 연 226만원으로, 20% 수준인 연 262만원의 대농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김영모(1990)의 연구결과 역시 적자비율이 높은 농촌이 도시보다 음식물비 및 교육비의 비율이 높으며, 준영세민, 영세민, 거택보호자의 순으로 음식물비의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기본적인 지출 이외의 항목은 대농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진다. 즉, 타 항목에 비해 교육교양오락비에서 영세농(총 가계비의 9%)과 대농(총 가계비의 13%)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영세농은 대농의 44%에 해당하는 교육교양오락비를 지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빈곤가계는 균형적인 소비지출은 물론 기본적인 소비지출 역시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경제자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가계관리능력과 소비자기능

가계가 소비생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자원의 수준을 높이거나 경제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같은 수준의 자원일지라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한다면, 자원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다. Slusher 등(1983)도 경제자원의 수준이 낮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의 경제적 복지에 만족스러워 한다면 이는 경제적 환경보다는 효율적인 가계관리 즉, 인적 자원 효율 극대화의 결과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의 수준은 교육수준으로 대체되어 사용되는데, 정기환(1992)은 농촌 빈곤가계 가장의 평균 수학년수가 5.7년에 불과했다고 하였으며, 노

자경(1991)은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그들의 객관적인 경제복지 수준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남편의 경우 주관적인 복지수준도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생활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은 농가의 가계관리능력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농가의 가계비관리행태를 연구한 김희순 등(1990)의 연구에 의하면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계비 기록율과 구매목록의 기록율이 낮았으며, 가계부를 기록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개인의 교육수준이나 인지능력, 가치지향 등 인적자원과 소득, 자산, 신용 등 경제적 자원 및 시장이나 상점 등의 시장환경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인적 자원의 수준은 시장에서의 소비자기능 수준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소비자기능은 소비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소비자활동의 장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응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활동능력의 개념으로, 기존 소비자관련 연구에서 소비자능력의 하위 영역으로 정의되어 왔다(Braun, 1979 : Dickinson, 1980 : 이기춘, 1985 등).

빈곤층 소비자들을 다룬 일련의 연구들(Caplovitz, 1963 : Barnhill, 1972 : Andreason, 1975 : Swagler, 1979 : 윤정혜, 1986 : 김경자, 이기춘, 1986 : 성지미, 1988 : 김성숙, 1989 등)에서는 빈곤층 소비자들의 낮은 교육수준, 경제자원 부족으로 인한 구매경험의 미약, 상품정보를 접할 기회 부족, 운명론적 가치지향 등이 낮은 소비자기능과 관련됨을 보고하였다. 즉, 빈곤소비자들은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시장메카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며 전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작으므로 시장에서의 대항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시간과 경비, 경험이 부족하고 기동력이 부족하며 교육 및 기타 공공시설의 이용에서 제외되고 편견과 차별을 받아 더욱 취약해지게 되므로, 결국 빈곤소비자는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소비자기만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2) 김희순 등(1990)은 자녀의 교육비 비중이 농가의 가계성 부채 중 71%, 전체 부채 중 11.9%를 차지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3. 시장환경

가계의 경제적 자원과 인적 자원은 시장환경과의 관계속에서 서로 다른 소비효율성을 결정할 수 있는데, 빈곤층 소비자들은 구매할 수 있는 장소나 신용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구입도 제한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는 전체적인 수요수준이 낮기 때문에 큰 슈퍼마켓이나 연금매점처럼 가격이 싸고 상품이 다양하게 구비된 대량상점이 있는 경우가 적다. 따라서 소규모 구멍가게나 노점상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점들은 같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제품 표준에 미달한 제품이나 포장에 제대로 안된 보다 낮은 품질의 제품을 많이 취급(Caplovitz, 1963)하므로, 소비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

우리나라 저소득층 소비자의 시장환경에 관한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소비자들은 보다 불리한 시장환경에 자주 접하게 되고 다른 집단의 소비자와는 다른 소비자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김경자, 이기춘, 1986 : 성지미, 1988 : 김성숙, 1989 등).

최근 우리나라 농촌에 대한 소비자보호원(1988, 1989)의 전국적 조사자료에 의하면 시장환경내 소비자기능문제는 특히 농촌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소비자는 구매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매원을 더 많이 참고하고, 비내구재 구입에 있어 상표나 가격을 중시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생활권내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アフ터서비스의 경험이 매우 낮으며 서비스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농촌의 시장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지만 도시에 비해 시장이나 상

점의 수가 다양하지 못하고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이는 농가에 있어 상점이나 시장의 선택은 경제적 자원 외에도 지리적 여건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Ⅲ. 연구방법

1. 용어의 조작적 정의

빈곤농가 : 상대빈곤이론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빈곤선 이하의 농가로서, 표본농가를 소득과 순자산별로 각각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의 하·중·상 집단으로 분류하여 1, 2, 3점을 주었을 때 소득과 순자산 점수의 합이 2점에서 6점 사이에 분포하는 농가.

비빈곤농가 : 본 연구에서 선정한 빈곤선 위에 위치하는 농가로서, 광범위한 비빈곤농가간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소득과 순자산 점수의 합에 의해 경제적 중하위(4점), 중상위(5점), 상위(6점) 농가로 분류함.

가계관리능력 : 농가 주부가 자신의 가계관리능력을 1점에서 5점의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한 점수.

소비자기능 : 소비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소비자 활동의 장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응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활동능력으로 예산수립, 구매, 금전관리, 소비자행동 등과 관련된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점수⁴⁾.

시장환경 : 농가에서 주로 이용하는 마을내 또는 인근 마을의 시장과 상점에 대한 6개 하위영역에서의 농가주부의 주관적 평가로 비내구재와 준내구재, 내구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함.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증분석 자료는 농촌진흥

4) 전체 12문항 합계를 낸 뒤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0점에서 100점으로 표준화하였다. ((척도최고점수 - 척도최저점수) / (척도최고점수 - 척도최저점수)) * 100

소비자기능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하의 α 값은 .65로 사용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자경, 최은숙(1995), 빈곤농가주부의 소비자기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권 1호를 참고하십시오.

5) 접근용이성, 상점의 다양성, 상품의 다양성, 품질의 우수성, 가격의 저렴성,アフ터서비스 등 6개 하위영역의 합계를 낸 뒤 0점에서 100점으로 표준화하였다. 시장환경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하의 α 값은 .85로 사용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과 도농촌진흥원 실무자가 도시근교, 평야, 중간 및 산간지대별로 비교적 경제수준이 낮다고 추천한 지역에 살고 있는 농가 주부로부터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1994년 4월 21일에서 4월 29일 사이에 수행된 본조사 결과, 비농가와 부분적으로 응답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총 444부의 설문지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SPSS PC를 이용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및 χ^2 검정, 일원분산분석 및 F 검정과 최소유의차(LSD) 검정 등의 통계기법을 이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⁶⁾

1. 빈곤농가의 소비실태

1) 빈곤농가의 소비지출 수준

농가 유형별로 총소득과 가계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빈곤농가는 연간 총가계비 706만원(월 59만원) 보다 총소득(연 670만원)이 36만원 부족하여 월 평균 3만원의 적자를 안고 있었다. 한편 중하위 이상의 농가는 총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 중하위농가의 연간 총 가계비는 771만원(월 64만원)으로 총소득의 61%, 중상위농가의 연간 총 가계비는 890만원(월 74만원)으로 총소득의 53%, 상위농가

의 연간 총 가계비는 1,206만원(월 101만원)으로 총소득의 45%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가의 가계비는 현금으로 지출되는 부분과 자가생산물의 현물소비로 구성되는데, 농가유형에 따라 현금지출과 자가소비의 구성비율이 달랐다. 즉, 빈곤농가는 자가소비액에 비해 현금지출 가계비가 5배 정도였으나, 중하위와 중상위 농가는 4배, 상위농가는 6배 정도를 차지했다. 빈곤농가가 중하위나 중상위농가보다 현금지출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영농 규모가 작고, 가족원수가 적은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2) 빈곤농가 주부가 지각한 비목별 소비지출 비중

빈곤농가가 지각한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농가 주부가 가장 비중이 크다고 응답한 소비지출 항목을 농가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이 다음의 < 표 2 >이다. 빈곤농가와 비빈곤농가 모두 비중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항목은 교육비였으며, 다음으로 음식물비의 비율이 높았다. 소비지출 비중에 대한 응답은 빈곤농가와 비빈곤농가간에 뚜렷한 차이는 볼 수 없었으나, 빈곤농가와 상위농가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빈곤농가는 상위농가 보다 교육비와 음식물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광열수도비와 교제증여비의 비중

< 표 1 > 농가유형별 가계비 구성 및 최소유의차(LSD)⁷⁾ 검증결과

구 분	빈 곤 평균 LSD	중 하 위 평균 LSD	중 상 위 평균 LSD	상 위 평균 LSD	F값 (df=3, 440)
총 소 득(만원/년)	669. 6a	1, 259. 1b	1, 680. 2c	2, 687. 7d	126. 8***
총 가계비(만원/년)	705. 6a	771. 3ab	889. 8b	1, 206. 1c	13. 6***
현금 지출(만원/년)	584. 3a	611. 2a	707. 1a	1, 034. 3b	12. 4***
자가 소비(만원/년)	120. 6a	159. 3b	179. 1b	168. 0b	8. 1***
빈도(444)	154	117	106	67	

*** p < 0. 001

6) 대상농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최은숙(1995), 농촌빈곤가계의 경제문제 I,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를 참고하시오.

7) 최소유의차검정 결과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경우는 같은 영어 철자로, 차이가 있는 경우는 다른 영어 철자로 제시하였다.

이 작은 편이었다. 교육비가 소득의 고회에 관계 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상위농가에 비해 빈곤농가에서 그 비중이 더 높으며, 빈곤농가는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타비목의 소비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표 2 〉 농가유형별 소비지출 비중이 가장 크다고 지각한 항목에 대한 주부의 응답 비율 (단위 : %)

구 분	빈 곤 (N=152)	중하위 (N=116)	중상위 (N=106)	상 위 (N=65)
음 식 물 비	27.6	31.0	34.0	23.1
피 복 비	3.3	0.9	1.9	6.2
주 거 비	3.9	2.6	1.9	1.5
광열수도비	8.6	8.6	7.5	21.5
교 육 비	44.1	45.7	40.6	32.3
보건위생비	2.6	2.6	1.9	0.0
교제증여비	3.3	5.2	7.5	13.8
관혼상제비	3.9	3.4	3.8	1.5
교통통신비	2.6	0.0	0.9	0.0
계	100	100	100	100
$\chi^2=35.8, df=24$				

2. 빈곤농가의 소비생활상의 어려움

1) 빈곤농가 주부가 지각한 비목별 현금압박
 한편 농가의 주부가 현금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한 소비지출 항목의 분포는 다음의 〈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앞서의 소비지출 비중에 대한 지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교육비에 대한 현금압박이 가장 큰 것은 농가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농가에 적용되나, 두번째로 현금압박을 받는 항목은 빈곤농가와 중하위농가의 경우 광열수도비였고, 중상위 이상의 농가에서는 교제증여비였다. 즉, 저소득층 농가의 경우 생활 필수지출 항목이 현금 부담을 주었고, 중상위 이상의 경우는 사회적 활동과 체면을 위한 지출이 현금부담을 주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음식물비 비율이 낮아진 것은 농산물의 자가소비가 가능하다는 농가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표 3 〉 농가유형별 현금압박수준이 가장 높다고 지각한 항목에 대한 주부의 응답 비율 (단위 : %)

구 분	빈 곤 (N=142)	중하위 (N=107)	중상위 (N=97)	상 위 (N=58)
음 식 물 비	9.9	9.3	12.4	10.3
피 복 비	8.5	7.5	9.3	10.3
주 거 비	8.5	6.5	9.3	5.2
광열수도비	11.3	9.3	10.3	10.3
교 육 비	39.4	42.1	36.1	32.8
교양오락비	0.0	1.9	0.0	1.7
보건위생비	6.3	3.7	1.0	1.7
교제증여비	8.5	7.5	14.4	15.5
관혼상제비	4.2	7.5	5.2	10.3
교통통신비	3.5	4.7	2.1	1.7
$\chi^2=21.5, df=27$				

2) 빈곤농가 주부가 지각한 욕구결핍

빈곤농가의 실제 소비지출과 욕구수준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유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싶은 소비지출 항목을 농가유형별로 살펴본 것이 〈 표 4 〉이다. 빈곤농가와 비빈곤농가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어서, 전체 농가 모두 주거비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이는 농가유형에 관계없이 현주거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함에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주택의 수선이나 개조 등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빈곤농가를 포함한 전체 농가가 두번째로 지출하고 싶은 소비지출 항목은 교육비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고등학교까지의 정규교육비 이외에도 사교육비나 대학진학에 따른 교육비가 현재로서는 능력 밖이라 원하는 만큼 지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순위의 피복비는 앞서의 소비지출 비중을 낮게 평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피복비에 대한 지출이 그들이 원하는 수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빈곤농가는 음식물비에 대한 욕구결핍이 4번째 순위였는데, 이는 농가의 자가생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식품류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빈곤농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러한 욕구가 제약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표 4〉 농가유형별 여유가 있다면 지출하고 싶은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주부의 응답비율

(단위 : %)

구 분 (N=395)	빈 곤 (N=134)	중하위 (N=106)	중상위 (N=95)	상 위 (N=60)
음 식 물 비	11.2	8.5	12.6	6.7
피 복 비	14.2	13.2	12.6	16.7
주 거 비	32.1	30.2	33.7	33.3
광 열 수 도 비	0.7	2.8	1.1	1.7
교 육 비	20.1	19.8	17.9	20.0
교 양 오락 비	8.2	11.3	10.5	10.0
보 건 위 생 비	9.7	10.4	7.4	6.7
교 제 증 여 비	1.5	2.8	0.0	3.3
관 혼 상 제 비	0.7	0.9	3.2	0.0
교 통 통 신 비	1.5	0.0	1.1	1.7

$\chi^2=14.8, df=27$

3) 생활이 어려운 달과 그 이유

〈표 5〉와 〈표 6〉에서 농가유형별로 생활이 가장 어려운 달과 그 생활고 이유를 보면 농가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계절은 주로 봄과 겨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의 경우 농사가 시작되면서 농사자금의 수요가 있게 되고 학생을 자녀로 둔 농가는 교육비의 부담까지 겹치게 되므로, 특별한 농외소득원이 없는 경우 봄철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에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부채농가가 연말에 부채를 상환해야하는데 반해 소득원(일거리)은 오히려 줄어서 현금의 부족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말연시에 치루는 행사로 인한 지출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빈곤농가는 중상위 이상의 농가에 비해 겨울철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된다. 생활이 어려운 달의 생활고 이유를 크게 나누어 보면 소득의 부족과 지출의 어려움으로 구분되는데, 일을 못한다거나 소득이 없거나 적음을 이유로 든 농가가 빈곤농가의 경우 31%였고 중하위 23%, 중상위 44%, 상위 32%였다. 일이 없다는 이유는 주로 겨울철에 해당되는데 농외소득

원이 없는 농가의 경우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지출 중 농사자금이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비율은 빈곤농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빈곤농가의 영농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교육비 지출로 인한 어려움은 빈곤농가와 중하위농가가 중상위 이상의 농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다.

〈표 5〉 농가유형별 생활이 가장 어려운 달에 대한 응답비율

(단위 : %)

구 분 (N=397)	빈 곤 (N=143)	중하위 (N=107)	중상위 (N=87)	상 위 (N=60)
1 월	12.6	13.1	6.9	3.3
2 월	9.1	10.3	10.3	13.3
3 월	24.5	29.9	17.2	25.0
4 월	12.6	10.3	18.4	16.7
5 월	8.4	11.2	16.1	13.3
6 월	6.3	5.6	5.7	13.3
7 월	4.2	0.0	8.0	1.7
8 월	2.1	0.9	2.3	1.7
9 월	2.1	1.9	2.3	1.7
10 월	0.7	2.8	2.3	0.0
11 월	2.8	3.7	0.0	5.0
12 월	14.7	10.3	10.3	5.0

$\chi^2=40.1, df=33$

〈표 6〉 농가유형별 생활고 이유에 대한 응답비율

(단위 : %)

구 분 (N=299)	빈 곤 (N=103)	중하위 (N=81)	중상위 (N=68)	상 위 (N=47)
일이 없으므로	13.6	12.3	14.7	4.3
행사지출 많음	15.5	16.0	4.4	10.6
채 무 상 환	3.9	9.9	8.8	4.3
농 사 자 금	19.4	22.2	26.5	29.8
소득없거나적음	17.5	11.1	29.4	27.7
교 육 비 지 출	18.4	18.5	5.9	10.6
축 의 금	3.9	2.5	4.4	4.3
생 활 비 부 족	7.8	7.4	5.9	8.5

$\chi^2=28.2, df=21$

3. 빈곤농가의 가계관리능력과 소비자 기능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빈곤농가라 할지라도 가계관리능력과 소비자 기능의 수준이 높다면 소비의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이들 변수는 농가의 복지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 빈곤농가의 가계관리자

가계관리경험은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는데, 농가는 도시에 비해 주부의 가계관리 참여정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가유형별 가계관리자는 다음의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빈곤농가와 중하위 농가에서는 주부가 단독 또는 남편과 공동으로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각각 68.9%와 67.8%로 중상위와 상위농가의 72.5%와 77.2%에 비해 적은 반면, 남편이 단독으로 가계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가계관리의 경험이 중상위이상 농가의 주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농가유형별 가계 관리자 및 χ^2 검증 결과
단위 : 호 (%)

구 분	빈 곤	중하위	중상위	상 위
부 인	58(39.2)	36(32.1)	40(39.2)	28(42.4)
남 편	38(25.7)	31(27.7)	21(20.6)	13(19.7)
가계 부부공동	44(29.7)	40(35.7)	34(33.3)	23(34.8)
관리자 기 타	8(5.4)	5(4.5)	7(6.9)	2(3.0)
계(428)	148(100.0)	112(100.0)	102(100.0)	66(100.0)

$\chi^2=5.33, df=9$

2) 빈곤농가 주부의 주관적 관리능력

자신의 관리능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주부는 실지로 소비자로서의 기능이 높으나(노자경, 최은숙, 1995),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빈곤농가 주부의 주관적 관리능력 평가는 중간수준으로 빈곤농가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빈곤농가 주부의 2/3는 자신의 관리능력을 보통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85%가 보통 이하로, 15%만이 유능한 편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상위농가의 주부는 유능하다는 평가가 약간 높은 20%였다.

3)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

농가유형에 따른 소비자기능점수별 분포는 <표 9>와 같이 농가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P < 0.01$)가 있었다. 빈곤농가주부의 소비자기능 점수의 평균은 빈곤농가 주부의 점수보다 상당정도 낮았으며 중위 이하 점수의 분포가 많은 반면, 중위 이상 점수의 분포가 적었다. 주부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관리능력 점수와는 달리 소비자 기능 점수가 농가유형에 따라 다른 것은 빈곤농가의 실제 인적 자원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노자경과 최은숙(1995)은 주부의 소비자기능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으며, 주부가 가계관리를 전담하고 자신의 관리능력을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소비자기능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표 8> 농가유형별 주부의 주관적 관리능력 및 χ^2 검증 결과

단위 : 호 (%)

구 분	빈 곤	중 하 위	중 상 위	상 위	
주부의 주관적 관리능력	전혀 유능하지 못함(1점)	7(4.7)	4(3.5)	5(4.9)	0(0.0)
	별로 유능하지 못함(2점)	21(14.1)	19(16.8)	14(13.7)	10(15.4)
	보 통 (3점)	99(66.4)	75(66.4)	66(64.7)	42(64.6)
	약간 유능한 편임 (4점)	15(10.1)	11(9.7)	11(10.8)	10(15.4)
	상당히 유능한 편임(5점)	7(4.7)	4(3.5)	6(5.9)	3(4.6)
계(429)	149(100.0)	113(100.0)	102(100.0)	65(100.0)	
평균(중앙값)	2.96(3.0)	2.93(3.0)	2.99(3.0)	3.09(3.0)	

$\chi^2=5.7, df=12$

〈 표 9 〉 농가유형별 주부의 소비자기능 평균점수 분포 및 최소유의차(LSD)검증 결과

단위 : 호(%)

구분	전체 (N=442)	빈곤 (N=153)	중하위 (N=116)	중상위 (N=106)	상위 (N=67)	
소비자 기능점수	- 50 미만	56 (12.7)	27 (17.6)	11 (9.5)	12 (11.3)	6 (9.0)
	50~60	70 (15.8)	33 (21.6)	19 (16.4)	11 (10.4)	7 (10.4)
	60~75	154 (34.8)	54 (35.3)	42 (36.2)	33 (31.1)	25 (37.3)
	75~85	102 (23.1)	25 (16.3)	24 (20.7)	36 (34.0)	17 (25.4)
	85~이상	60 (13.6)	14 (9.2)	20 (17.2)	14 (13.2)	12 (17.9)
F값 (df =3, 438)			4.23**			
평균 LSD		68	64a	69b	70b	70b

** p < 0.01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은 빈곤농가의 주부가 정보의 획득 및 처리, 기동성 등에서 불리하므로 소비자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주부의 관리자로서의 경험이 소비자기능향상에 도움이 되며, 남편이 전담하는 비율이 높은 빈곤농가의 경우는 주부의 관리경험부족이 소비자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시장환경

시장환경은 농가의 소비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변수로서, 빈곤농가가 이용하는 시장의 환경은 소비자의 개인적인 조건과 지역사회의 조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과 개인적 특성이 개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면 소비자의 거주지역, 주변 시장의 수와 종류 등이 지역사회 조건이 될 것이다.

1) 이용상점의 종류 및 소요시간

빈곤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상점이 비빈곤농가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지 상품의 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비내구재의 경우 농협구판장과 슈퍼를, 준내구재의 경우는 일반상설시장과 5일장을, 내구재의 경우는 대리점과 농협구판장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유형에 따라 이용하는 상점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점까지의 소요시간은 5일장의 경우 차로 30분 미만, 슈퍼의 경우는 차로 30분 또는 걸어서 15분 이상이, 일반상설시장과 농협구판장, 대리

점, 생산자 직판장은 차로 30분 미만, 마을내 구멍가게는 걸어서 15분 이내가 가장 많았으나 농가 유형에 따른 차이는 볼 수 없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상점 수와 종류가 크게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상당히 동질적인 시장환경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빈곤여부와 상관없이 생활범위내에서 상점을 선택해야하는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농가유형에 따른 시장환경 점수

농가가 이용하는 시장 환경의 질이 농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비내구재, 준내구재, 내구재 시장별로 시장까지의 접근용이성, 상점의 다양성, 상품의 다양성, 품질의 우수성, 가격의 저렴성, 애프터서비스의 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산출한 하위 항목별 시장환경 점수와 전체 시장환경 점수의 분포는 다음의 〈 표 10 〉과 같다.

각 하위영역별로 점수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 분포하며 전체 농가의 하위영역별 시장점수의 평균은 1.9점에서 2.8점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점수대를 보였다. 이는 농촌의 소비자가 상점의 선택 기회에 제한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보다 효율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상점의 탐색 또한 제한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순으로 하위 시장환경의 평균 점수를 살펴본 결과 상점의 다양성, 가격의 저렴성, 시장까지의 접근 용이성, 상품 다양성, 품질의 우수성, 애프터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가유형에 따라 하위영역별 시장환경에 차이

〈 표 10 〉 농가유형에 따른 하위영역 및 전체 시장환경 평균점수 및 최소유의차(LSD)검증 결과

구 분	전체 (n=444)	빈곤 (n=154)	중하위 (n=117)	중상위 (n=106)	상위 (n=67)	F값 (df=3, 440)
접근 용이성	2.4	2.4	2.3	2.6	2.4	1.1
상점 다양성	1.9	2.0	1.8	1.9	1.8	1.1
상품 다양성	2.5	2.5	2.4	2.5	2.5	0.7
품질 우수성	2.6	2.5	2.5	2.7	2.7	1.2
가격 저렴성	2.1	2.1	2.3	2.1	2.0	1.2
아프터서비스	2.8	2.7a	2.7a	2.9ab	3.1b	2.0
전체시장환경	34.6	34.4	32.9	36.1	35.8	0.8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가유형에 따른 하위영역별 시장환경점수는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아프터서비스영역에서만 부분적인 차이를 보여 빈곤농가와 중하위농가는 상위농가 보다 아프터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빈곤농가의 하위영역별 시장환경 평균 점수는 다른 농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전체 농가의 평균점수와 비교해 볼 때 접근 용이성, 상점 다양성, 상품 다양성 점수는 약간 높았으며 품질 우수성, 가격 저렴성, 아프터서비스의 점수는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앞선 세 점수는 주어진 여건에 대한 평가로서 빈곤농가만이 특별히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품질의 우수성과 가격의 저렴성은 빈곤농가가 경제적 자원의 부족하므로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저가의 질 높은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데서 오는 부정적인 평가로 해석된다. 아프터서비스의 경우 빈곤농가와 중하위농가의 부정적인 평가는 중상위농가나 특히 상위농가의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비교되는데, 빈곤농가의 낮은 교육수준과 적은 경험이 아프터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농가유형 외에 시장환경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해 도, 지대, 배차시간 등의 지역사회조건과 주부의 학력, 연령, 가계관리자 등 개인적 조건에 따른 시장환경점수를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배차시간만이 시장환경점수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차간격에 따른 시장환경점수는 30분 미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30~60분 미만이었고, 60분 이상은 통계적으로 같은 집단으로 묶일 수 있

었으며, 1시간 미만 집단에 비해 시장환경점수가 낮았다. 따라서 농가의 경제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 수준 보다는 거주지역의 교통사정이 농가의 시장환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 표 11 〉 배차간격에 따른 시장환경 점수 (N=405)

구 분	30분 미만	30~60분	60~90분	90~120분	120분 이상
전체 시장 환경	평균, LSD 43.3c	36.2b	30.2a	27.3a	29.7a
	F값 (df=4, 400)	12.85***			

V. 결론 및 제언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빈곤가계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소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농가의 소비실태를 살펴보고 가계관리능력과 소비자기능 및 시장환경을 파악하여, 농촌 빈곤가계의 소비문제를 진단함으로써 빈곤농가의 소비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빈곤농가는 비빈곤농가와는 달리 가계비가 총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적자(월 평균 3만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교육비와 음식물비의 비중이 높은 반면, 광열수도비와 교제증여비의 비중이 작

고, 교육비와 광열수도비에 대한 현금압박이 높았다. 또한 주거비와 교육비 등에 원하는 만큼 지출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봄철과 겨울철에 교육비와 부채상환의 압박 및 농외소득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는 농가가 많았다.

2. 빈곤농가의 주부가 평가한 가계관리능력은 비빈곤농가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소비자기능척도로 평가한 소비자기능점수는 비빈곤농가 보다 낮았다.

3. 빈곤농가가 이용하는 시장환경의 점수는 비빈곤농가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고, 버스의 배차시간만이 시장환경 점수에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도출하였다.

1. 빈곤농가의 소비지출 수준과 구성은 비빈곤농가 보다 취약하여, 기본적인 소비지출에 있어서도 압박과 욕구결핍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영농기반이 취약한 빈곤농가의 소득수준을 가계비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농가의 지역과 연령을 고려한 농외소득원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빈곤농가는 낮은 소비자기능으로 인한 소비효율성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소비자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농촌지역에서 행해지는 영농교육과 부녀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전달방식이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농가의 전반적인 재무관리는 물론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상식 등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경제문제에 대한 상담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농촌의 소비자가 보다 좋은 질의 상품을 낮은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상점과 상품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하므로,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는 농협구판장 등의 상점 개설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VI. 참고문헌

김경자, 이기춘(1986), 소득계층별 비교를 통한 저소득층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4권 2호
 김성숙(1989), 도시 저소득층의 소비자문제지각

과 관련요인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김영모(1990),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김희순 등(1990), 농가의 가계비관리행태 및 소비의식 조사분석, 1990년도 연구조사보고서, 농촌영양개선연수원
 노자경(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 수준 및 관련 변수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노자경, 최은숙(1995),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3권 1호
 농림수산부(1994), 1994년도 농가경제조사결과
 성지미(1988), 저소득층의 소비자기능과 소비자문제인지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윤정혜(1986), 도시 저소득층소비자의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권 2호
 윤정혜(1989), 도시 저소득층소비자의 구매장소 범위의 정보탐색행동, 대한가정학회지 제 27권 4호
 정용선, 이경옥(1990), 도시 저소득층 가계의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부산대 가정대학연구보고 16 : 9~22
 최은숙(1992), 한국농촌의 생활의 질 지표개발 및 진단-지역개발 지표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학술연구조성비지원 연구보고서
 최은숙(1995), 농촌빈곤가계의 경제문제 I - 경제자원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농촌생활과 학회지 제 6권 1호
 한국소비자보호원(1988),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 구조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1989), 농촌소비생활 실태와 의식구조
 Andreason, A. R. (1975), The Disadvantaged Consumer, N. Y. : The Free Press.
 Barnhill, J. A. (1972), Market Injustice : The Case of the disadvantaged consumer, J. of Consumer Affairs, vol. 6 no. 2 : 78~83.
 Caplovitz, D. (1967), The Poor Pay More. N. Y. : The Free Press.
 Mandell, L. (1981), Economics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SRA
 Swagler(1979), Consumer and the market, 2nd ed., Health and Company